 금융위원회	보도참고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12.27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	담 당 자	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35)

제 목 :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들에게 내년도
금융정책의 화두(話頭)인 ‘혁신금융’에 적극적으로
나서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.

○ 또한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의 ‘단기 실적주의’로 인한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,

-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자회사들의 포트폴리오 조율 등을 통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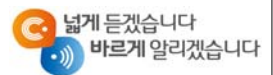
□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, 금융회사들의 혁신금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 역시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, 기술-신용 평가 통합모형 도입, 동산금융 인프라 개선, 면책제도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.

○ 특히, 제도와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, 제도개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금융지주회장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